

## 《三國遺事》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에 대한 一考

A consideration to the holy king of an article on the castle of Liao-tung's Yukwang pagoda from the Samgukyusa

---

**저자**            金善淑  
**(Authors)**       Kim, Sun-Sook

**출처**            [신라사학보](#) , (1), 2004.5, 245-264 (20 pages)  
**(Source)**        [SILLASAHAKPO](#) , (1), 2004.5, 245-264 (20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351>

**APA Style**      金善淑 (2004). 《三國遺事》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에 대한 一考. 신라사학보, (1), 245-264.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1/26 10: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에 대한 一考

金善淑\*

I. 머리말	III. ‘聖王’의 實體와 그 意味
II. 遼東地域의 情勢와 高句麗	IV. 맺음말

## I. 머리말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고대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불교가 들어오면서 점차 국가적 신앙으로 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교는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결국 불교는 토착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고대문화형성에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 이는 고대국가형성에 필수적인 律令에 살생을 금하는 불교적 계율이 첨가되고 있는 점, 고대 정치제도라든가 王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 : <4세기 신라 정치외교관계의 형성과 그 배경-고구려·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주문화연구》 6, 2003 : <고대 불교신앙행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造像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65, 2003외 다수

名에 불교적인 요소가 가미된 점, 그리고 현재까지 발굴·발견되어 전해지고 있는 고대의 유적·유물들 대개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育王塔條 인용의 《三寶感通錄》에는 우리나라 불교(문화) 전래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三寶感通錄》에 이렇게 실려있다. 고(구)려 요동성 옆에 있는 탑은 古老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고려 성왕이 국경을 순행하다가 이 성에 이르렀는데 오색구름이 땅을 덮는 것을 보고는 그 구름 속을 찾아가 보았다. 거기엔 어떤 중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가까이 가려하면 곧 없어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 곁에는 三重의 土塔이 있어 위는 솔을 덮은 것 같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다시 가서 중을 찾아보았으나 다만 황량한 풀이 있을 뿐이었고 그곳을 한 길이나 깊이 파보았더니 지팡이와 신이 나오고 또 파보았더니 그 위에 梵書가 있어 侍臣이 그 글을 해독하고 佛塔이라 하였다. 왕이 자세히 물어보자 시신이 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한나라 때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름은 蒲圖王이라 합니다”라고 하니 聖王이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생겨 七重木塔을 세웠으며 불법이 비로소 전해오자 그 시말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지금 다시 그 탑의 높이를 줄이다가 목탑이 썩어서 무너졌다. 아육왕이 통일한 뒤에 閻浮提洲 곳곳에 탑을 세웠으니 이는 이상할 것이 없다.

위의 사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소유의 요동지역에는 이미 漢나라 때에 전해진 인도식 覆鉢形 土塔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탑이 발견된 당시 고구려에서는 복발형 토탑과 같은 인도식 佛塔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梵書라든가 漢式의 多層木塔 등이 일부라도 고구려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더구나 위위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구려의 ‘聖王’에 관한 언급이다. 《三國遺事》의 撰者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즉,

西漢과 三國의 지리지를 살펴보면 요동성은 압록강 밖에 있으며 漢의 幽州에 속해 있었다. 고(구)려 성왕은 어느 임금인지 알 수가 없다. 혹 동명성제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동명왕이 前漢 元帝 建昭 2年(B.C. 37)에 즉위, 成帝 鴻嘉 壬寅(B.C. 19)에 승하하셨고 이때는 아직 漢에도 불경[貝葉]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찌 해외의 陪臣이 梵書를 알 수 있겠는가. 西漢시대 서역문자를 아는 자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그는 고구려의 성왕을 ‘東明聖王’으로 보고 있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요동성의 지리적 배경과 시대적 정황 등을 근거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황당한 설화로 치부해버림으로써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sup>2)</sup> 필자는 이와 같은 학계의 태도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서의 기록에 약간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역사성을 부인한다거나 사료적 가치를 마음대로 폐기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또한 아무리 새로운 객관적 여건을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굳어버린 학설이나 옛 사료들을 다시금 검토하고 고증 확인해 보는 일은 학자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3)</sup>

- 1) 《신편 삼국유사》(리상호 옮김, 신서원)에서도 성왕을 동명성왕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찍이 《朝鮮日報》 1995년 10월 17일자 21면에 기고된 신영훈 씨의 글에서도 성왕을 동명성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명왕대에 목조건물이 축조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서역과 연락이 있었을 것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 2) 고유섭은 일찍이 그의 글 속에서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탑조의 기사 내용을 황당한 설화로 치부한 적이 있고(<朝鮮塔婆의 研究> 《震檀學報》 6, 1936, 3쪽) 기껏해야 渤海代 사실의 誤傳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6쪽).
- 3) 김영태, <高句麗 佛教傳來의 諸問題> 《佛教學報》 2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6, 1~2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 인용의 《三寶感通錄》 기사와 이에 대한 撰者의 해석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高句麗의 聖王에 대한 역사적 해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보기로 하겠다.

## Ⅱ. 遼東地域의 情勢와 高句麗

기록상으로 현재까지 전해오는 고구려 建塔經營의 초기지역은 遼東城 育王塔<sup>4)</sup>의 소재지인 遼東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古朝鮮의 초기 중심지가 있었던 곳이며 고구려의 대륙진출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漢·魏와의 攻防은 물론이고 이후 이 지역으로 세력을 뻗치던 慕容氏의 燕 등 북방세력들과도 그 소유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여야만 했던 것이다. 물론 고구려는 後漢 光武帝 建武 8年(32)에 사신을 보내어 王號를 회복시키는 등<sup>5)</sup> 한편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고구려의 강은양면정책은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일찍이 漢의 幽州에 속해 있던<sup>6)</sup> 요동은 魏代 이래 平州에 귀속되

4) 育王塔은 불교신자이던 아쇼카왕, 즉 育王이 인도의 諸國을 통일하고 난 후 전국 곳곳에 塔을 세우 게 됨에 따라(《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 育王塔條 “育王所統一閭浮提洲 處處立塔”) 佛塔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5)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75 句驪條.

6) 《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育王塔條. “按西漢與三國地理志 遼東城在鴨綠之外 屬漢幽州”

어 東夷校尉府가 관할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남하한 鮮卑의 慕容廆가 284년(晉 太康 5)에 燕을 건국하면서 요동은 연에 귀속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요동진출은 그리 용이해 보이지 않았다.<sup>7)</sup> 그것은 晉의 平州刺史 東夷校尉 崔毖와 고구려 및 宇文·段氏 등이 서로 모의하여 모용외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毖가 고구려로 도망해 버리면서 이를 계기로 고구려와 연의 전면전이 시작되었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미천왕 20년(319)과 21년(320)에 요동을 공격했고 전연의 모용외는 아들 翰과 仁을 시켜 고구려를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sup>8)</sup> 그리고 337년에는 慕容皝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여 龍城(지금의 朝陽)에 수도를 정한 뒤 342년에 대군을 거느리고 西晉 이후 고구려에 정복당한 新城 등 현토군의 옛 땅을 수복하려고 기도하였는데 전연의 대군은 新城·木底 등의 성을 점령한 후 고구려의 환도성에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고 龍城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다.<sup>9)</sup> 이것은 魏의 公孫康과 幽州刺史 毌丘儉이 고구려 도성을 공격한 이후 전연이 고구려에게 준 가장 큰 타격이었고 이로써 전연이 요동에 대한 안정적인 통치를 확보한 대신 고구려는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일시 저지당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기는 불교공인

7) 고고학상으로도 前燕 초기에 있어서 고구려와 한군현과의 남쪽경계선은 지금의 太子河 중상류지 역으로 제한되는데 지금의 本溪를 중심으로 하는 요동 산지와 평원이 접하는 지역, 즉 태자하 상류의 양맥이 있던 곳에 해당되므로 동쪽으로도 요동성지역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다(王綿厚, <高句麗 古城의 築城에 대한 시대구분 및 그 역사적 배경> 《고구려산성연구》, 학연문화사, 1999, 98쪽).

8)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17 美川王 20年 冬12月 및 21年 冬12月條.

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18 故國原王 12年條.

金毓黻, 《東北通史》, 白山, 197~236쪽.

을 전후로 한 고국양왕 2년(385) 무렵이었다. 하지만 곧 그 해(385) 겨울 11월 후연의慕容垂가 그의 동생慕容農에게 3만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고구려를 다시 공격케 하였고, 農이 요동과 현토 2군을 회복하면서 후연의 소유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sup>10)</sup> 이후 고구려가 다시 요동지역을 점령한 시기는 392년 무렵이었다. 이때부터 요동지역은 廣開土大王(永樂太王·國罫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 391~412)에 의해 고구려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11)</sup>

결국 위와 같은 요동지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그곳에는 漢·魏·晉代 이래 燕 등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과 관련된 유물·유적 등이 남을 수 있었으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도 요동지역의 유적·유물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2)</sup>

그렇다면 요동지역에는 언제부터 불교와 그 문화가 전래되었던 것일까. 중국의 경우 불교초전시기에 대해서는 ‘伊存口授浮屠經說’·後漢 明帝 연간의 ‘永平求法說’ 등 모두 10가지설로 집약된다. 그 가운

10)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18 故國壤王 2年條. “夏6月 王出兵四萬 襲遼東 先是燕王垂命帶方王佐 鎮龍 城 佐聞我軍襲遼東 (中略)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下略)”

11)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18 廣開土王 14年·15年條.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 陷 熙命將士 (中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中略) 經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中略)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金毓黻, 《東北通史》, 234~235쪽(“考高句麗於晉太元十年(385)六月 初陷遼東玄菟二郡 至是年十一月 燕復二郡 是即高句麗故國壤王二年也 又後十九年 爲晉元興三年 而遼東再陷 玄菟郡亦同時淪陷 是即廣開土王之十四年 而終致於不能復”).

12) 고고학상으로 漢魏 이래 遼河 중·하류의 左岸과 右岸의 여러 지류를 따라 축조된 대형산성을 고구려가 그대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王綿厚, 앞의 책, 1999, 102~103쪽).

데에서 후한 명제시대의 소위 ‘永平求法說’이 가장 신빙성있는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3)</sup> 또한 그동안 요동지역과 가까운 山東地域의 경우 일반적으로 晋代(265~316)에 와서야 불교가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최근 東(後)漢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石佛像이 발견된 일이 있고 《感通錄》 卷上, 石趙青州東城塔緣과 《高僧傳》 卷9, 佛圖澄傳에 의하면 石趙時代 이전에 이미 阿育王塔·寺와 佛像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晋代 이전 시기부터 불교문화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4)</sup>

따라서 중국의 불교초전 시기와 산동지역의 예로 볼 때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배경이 되는 요동지역에도 이미 후한시대 무렵부터 불교의 전래와 함께 그 문화까지도 수용되고 있었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15)</sup>

아울러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줄거리에는 다분히 道教的 또는 神異的 요소가 풍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불교초전 시기에 불교와 도교가 결합되어 발전<sup>16)</sup>해간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後漢末 三國期의 중국학계는 老莊思想의 清談玄義의 풍조가 성행하였었다. 그리고 魏晉時代에도 그러한 풍조가 귀족사

13) 《弘明集》 卷1. “昔孝明皇帝夢見神人 身有日光 飛在殿前 欣然悅之 明日 博士君臣 此爲何神 有通人 傳毅曰 臣聞天竺有得道者 號之曰佛 飛行虛空 身有日光 殆將其神也 於是上悟 遣使者張騫 羽林郎秦景 博士弟子王遵等十二人 於大月支(氏)寫佛經四十二章 (中略) 時於洛陽城西雍門外起佛寺 (下略)” : 《洛陽城西伽藍記》. “白馬寺 漢明帝所立也 佛入中國之始寺 (中略) 遣使向西域求之 乃得經像焉 時白馬負而來 因以爲名 (下略)”(蔡日新, 《漢魏六朝佛教概說》, 文津出版社, 2001, 11쪽에서 재인용).

14) 金文經, <山東佛教의 性格> 《승실사학》 24, 1984, 78~79쪽.

15) 前燕의 경우도 고구려의 불교전래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池培善, <高句麗 佛教傳來의 一考> 《漢城大學論文集》, 1987 참조).

16) 蔡日新, 앞의 책, 2001, 20~21쪽.

회에 크게 흥미하였으며 그러한 玄學思潮는 불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格義佛敎’라고 하는 소위 道家的 淸談佛敎의 성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은 성격을 띤 중국북조의 불교문화는 인접국인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일찍이 前秦王 符堅은 小獸林王 2년(372)에 僧 順道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佛像과 經을 전한 일이 있고 同王 4년에도 僧 阿道가 入麗하자 고구려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사찰을 지어 순도와 아도를 각각 안치한 일이 있다.<sup>19)</sup> 이는 고구려 불교 내지 불교문화의 전래시기 및 성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해되는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에서는 沙門이나 佛像, 佛經 등의 전래만이 아니라 사찰이 세워지고 僧이 안주하는 것에서 불법의 시작(海東佛法之始)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치원의 <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와 《三國遺事》 인용의 高僧傳 등에서는 소수림왕 2년의 順道入麗 사실을 언급함이 없이 晉의 曇始가 東晉孝武帝 太元 末年에 入麗한 일을 高句麗佛敎의 開始期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0)</sup> 이는 아마도 曇始 이전에 이미

17) 김영태, 앞의 논문, 1986, 23쪽.

18) 김영태, 앞의 논문, 1986, 23~24쪽.

1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2年 및 4年條. “僧阿道來”; 《三國遺事》 卷3, 興法 順道肇麗條. “(上略) 又四年甲戌 阿道來自晉(中略) 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誤矣 實自前秦而來(下略)”

그런데 양 사서에서는 阿道の 出來國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三國史記》에서는 阿道の 出來國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三國遺事》에서는 阿道를 前秦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370년대와 380년대 무렵 고구려와 동진 사이에 사신왕래가 없었던 점과 僧 阿道보다 2년 앞서 入麗한 僧 順道の 出來國이 前秦이란 점 등을 근거로 《三國遺事》 撰者의 해석처럼 僧 阿道가 東晉에서 왔던 것이 아니라 前秦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20) <曦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 “(上略) 波及海隅(東國)之始 昔當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지 오래되었으나 그에 의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져 불교 본연의 면목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에서 표현된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이들 견해는 고구려에 있어서 불교의 初傳時期 내지 전래 시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구려 불교의 改時期를 말했을 뿐이다. 만일 고구려불교의 전래시기를 문제삼는다면 중국의 불교가 전 지역에 걸쳐 영향을 줄만큼 활발하게 전개되던 2세기 중엽에서 3세기 초쯤의 사이로부터 적어도 1세기쯤 뒤에는 불법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짙다. 그리고 고구려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불교가 들어왔을 것으로 보아 順道의 불교전법 사실은 국가적 公傳일 따름이며 불교의 初傳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그런데 《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育王塔條에 의하면 聖王의 재위를 전후로 한 시기의 요동지역에는 建塔과 관련된 西域經傳<sup>22)</sup>이

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 儀 若甘泉金人之祀 厥後西晉曇始 始之貌亦攝騰東入 句驪阿度 度于我 (下略) : 《三國遺事》 卷3, 興法 阿道基羅條. “(上略) 又按元魏釋曇始(一云惠始)傳云 始關中人 自出家已後 多有異迹 晉孝武大元年末 賈經律數十部 往遼東宣化 現授三乘 立以歸戒 蓋高麗聞道之始也 (下略)”

- 21) 김영태, <高句麗佛敎思想> 《韓國佛敎思想史》, 1975, 34쪽.
- 22) 서역지방이란 중국의 서북쪽에 위치한 新疆省 소재 천산산맥의 남쪽 타크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곤륜산맥·천산산맥·총령산맥 등에 의해 남·북·서의 3면이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漢代에 있어서는 서역 36국으로 불리웠던 동서교통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국의 초기 불교는 인도불교 그대로가 아니라 당시에 이미 서역지방에 전해져 있던 서역불교가 전래된 것이고 인도불교의 경전 등도 서역어로 번역되어 중국에 전해진 것이다. 물론 중국불교의 초기에는 서역의 불교가 중국에 영향을 끼쳤지만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직접적인 교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하여진 후 200여년이 지난 동진시대에 이르러 인도로 부터 직접 梵僧이 도래해 온다던가 또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入竺求法僧이 나옴에 따라 중국불교는 인도불교와 직접적인 교섭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래되고 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건탐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法華經》은 기원 전후 인도 서북지역에서 성립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경전간행이 매우 성행했었고 중국에서도 모두 6차례에 걸쳐 漢譯될 정도로 중시된 경전인데 286년의 竺法護 譯 《正法華經》과 406년의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등이 잘 알려져 있다.<sup>23)</sup>

《法華經》의 序品과 見寶塔品에는 각각 塔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序品 : (중략) 또 보니 어떤 불자들은 향하의 보배같은 무수한 탑을 세워 나라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그 보배탑 높이가 5천 유순(由旬),<sup>24)</sup> (중략) 이러한 탑묘마다 幢과 幡이 1천이요 진주로 된 甘露幔에 보배방울 울러오니 (중략)

見寶塔品 :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 멀도할 때에 이르러 하늘과 인간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멀도한 후나의 전신에 공양을 하려는 이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神通한 원력을 가져 시방세계 어느 곳에나 《法華經》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보배탑이 모두 그 앞에 솟아나서 탑 가운데 전신이 있어 한탄하여 거룩하다고 말하느니라. (중략)

---

한다(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불교문화사》, 동국대 출판부, 1988, 77~78쪽). 따라서 이같은 중국의 초기불교와 관련하여 미루어 짐작하건데 우리측 사료에 등장하는 胡僧 등은 바로 이 서역지방에서 온 승려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育王塔條의 ‘西域’은 인도를, 그리고 ‘西域文字’는 곧 인도의 문자를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이민수 역,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83, 217쪽 주 12) 참조) 엄밀히 따지면 서역과 서역문자는 각각 중앙아시아지역과 그 지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이운허 옮김, 《妙法蓮華經》, 동국역경원, 1990, 4~5쪽.

24) 인도의 거리단위로 ‘聖王’이 하루동안 가는 거리를 말한다.

따라서 고구려 성왕의 재위기간에는 건탐의 사상적 근거인 《法華經》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 동진 효무제 태원말년(396)에 僧曇始가 經律 수십부를 갖고 요동에 와서 三乘과 歸戒를 설한 일이 있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三乘과 歸戒와 같은 불교의 규율확립 및 그 정리가 시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당시 중국의 불교계는 기존의 清談格義風의 불교에서 벗어나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위기였고 般若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는 물론 소승의 經論도 연구되어 불교교리의 學的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諸經典이 무차별적으로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sup>26)</sup>

그렇게 볼 때 ‘불교를 믿고 복을 구하라’고 하는 고국양왕 8년의 下敎 내용이나, 백제 아신왕 즉위년에 있었던 하교 내용이라든지, 신라 법흥왕대에 사찰창건을 둘러싼 설화 속의 ‘願爲蒼生 欲造修福滅罪之處’라고 한 내용<sup>27)</sup> 등에서 불교의 ‘因果禍福之說’인 業說과 관련된 불교경전도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또한 고구려에서는 《涅槃經》 40餘卷이 강독되어진 사실이 있

25) 이이화는 순도가 고구려에 가져온 經文에 대해 이 당시 《법화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綜理衆經目錄>일 것으로 보았다(《역사 속의 한국불교》, 역사비평사, 2002, 16쪽). 그러나 이미 西晉代인 3세기 후반 竺法護에 의해 般若經類를 비롯해 華嚴經類·法華經類·涅槃經類 등 다양한 경전이 번역되고 있었고 중국전역에 걸쳐 널리 보급(蔡日新, 앞의 책, 2001, 52~56쪽)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에서도 이같은 譯經文을 고구려에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6) 김영태, 앞의 책, 1975, 31~33쪽.

27)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8 故國壤王 8年條.

《三國遺事》 卷3, 興法 難陀關濟 및 原宗興法馱躄滅身條.

28) 고익진,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31쪽.

다.<sup>29)</sup> 《열반경》은 《법화경》과 함께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佛敎義學의 중심경전으로써 중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도 4세기 후반이후 《법화경》 외에 《열반경》 등이 널리 수용되고 있었을 것이고, 이밖의 《인왕반야경》과 같은 또다른 佛經 등도 받아들여지고 신봉되어졌을 것이다.<sup>30)</sup>

그런데 고구려에서 佛塔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의 공전무렵인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될 수 있겠다.<sup>31)</sup> 그러나 불탑의 존재가 고구려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그것은 앞서 인용한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대화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구려의 臣下가 梵語로 쓰여진 佛塔관련 經典을 해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蒲圖王’이라고 하는 중국식 탑의 칭호와 건립시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聖王’이 즉시 多層木塔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불교공인 이전부터 중국에서 漢譯된 불교경전이 이미 요동지역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고구려내의 일부 지역 내지 일부 계층에게도 암암리에 佛經과 佛塔 등이 전래되었거나 최소한 그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2)</sup>

따라서 ‘聖王이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생겨 七重木塔을 세웠으며

29) 《三國遺事》 卷3, 塔像 高麗 靈塔寺條. “僧傳云 釋普德 字智法 前高麗 龍岡縣人也 詳見下本傳 常居平壤城 有山方老僧 來請講經 師固辭不免 赴講涅槃經四十餘卷 (下略)”

30) 김영태, 《삼국시대 불교신앙 연구》, 불광출판부, 1990.

31) 고유섭은 소수림왕 2년 전후부터 고국양왕 말년까지(372~392) 20년간 적어도 造塔經營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1936, 4쪽).

32) 《海東高僧傳》 卷1, 流通 1 釋亡名條에 따르면 4세기 중반 무렵 晋僧 支遁이 亡名의 고구려 道人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불법이 비로소 전해오자 그 시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聖王代 이전까지만해도 불교는 고구려의 민간에서 일부 극소수만이 믿고 있었던 종교였던 터라 당연히 고구려에서는 佛敎思想이나 佛塔 등과 같은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다. 비록 불교문화가 고구려에 일찍부터 알려졌었고 소수림왕 2년에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전진으로부터 고구려에 전래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불교 내지 그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란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聖王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의 신앙심으로 인해 불교문화가 광범위하게 성행할 수 있었고 요동지역의 고구려인들에게도 佛法이 전해지면서(高麗聞道之始) 불탑의 건립 연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重層木塔과 같은 중국식 불탑이 성왕대에 바로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2-3세기에 발생하여 중국 전역에서 활발히 건립되던 重層樓閣塔<sup>33)</sup>의 실체가 고구려내에서도 성왕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 Ⅲ. ‘聖王’의 實體와 그 意味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도대체 ‘聖王’은 과연 고구려의 어느 왕에 비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추론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高句麗史上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처음 불교문물을 받아들이고

33) 《後漢書》 卷73, 陶謙傳. “(上略) 大起浮屠寺 上累金盤 下爲層樓 又堂閣 周回 可容三千許人 (下略)”(蔡日新, 앞의 책, 2001, 30쪽에서 재인용).

불교가 고구려에서 성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장본인은 바로 소수림왕이었다.<sup>34)</sup> 그러나 고구려의 대중들에게 널리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권장한 왕은 그의 弟로서 왕위에 오른 고국양왕(384~391)이었다.<sup>35)</sup>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의 조치 이후 불교를 믿고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가 대중들에게 널리 불교를 홍보한 배경 내지 신앙심을 유발시킨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앞장에서 살펴본 遼東城 育王塔의 實見 및 《法華經》 기타 建塔과 관련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국양왕은 재위 2년만에 그렇게도 염원하던 요동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곳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미추어 볼 때 고국양왕은 요동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곧 그곳의 여러 城을 순행했을 것이며, 이때 그들 일행의 눈에 띈 것이 育王塔과 같은 불탑 및 佛敎經典 등의 불교문화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그 직후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생겼던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써 功德行爲인 탑을 건립하고 왕은 승하하기 전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고 복을 구하라는 유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국양왕의 치적을 고려해 볼 때 高句麗史上에 있어서 불교식 칭호인 ‘聖王’에 해당되는 인물로는 최초로 佛敎弘布를 대중들에게 널리 선언한 고국양왕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賢愚經》에 의하면 弗沙如來時代에 담마유지라는 ‘轉輪聖王’이 이웃의 바세기왕을 정벌하러 갔다가 慈心三昧의 光明을 보고 발심하여 정벌하기를 그만둔 후 부처님을 그 나라로 모셔왔다고

3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18 小獸林王 2年 및 5年條. “夏六月 秦王 苻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之(下略)”,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3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18 故國壤王 8年 3月條. “下教 崇信佛法 求福”

하는 설화가 전한다.<sup>36)</sup> 여기에서의 전륜성왕은 護法明王으로서 미륵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미륵은 閻浮提에서 석가 다음에 來王한 미래불로서 현재는 도솔천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補處菩薩이며, 미륵이 항생할 미래의 龍華世界를 전륜성왕이 正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7)</sup>

그러기에 장지훈은 백제의 성왕이란 廟號가 미륵신앙의 전륜성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 正法治國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미륵불이 출현한다는 의미에서의 王名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up>38)</sup> 그러나 廟號란 생존시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백제의 성왕이 재위하고 있었을 때에도 과연 성왕이란 칭호가 쓰여졌을지 의문스럽다. 다만 백제의 제26대 왕인 ‘聖王’은 생존시 그의 이름을 ‘明穰’이라 하였고, 일본측 사료에도 대개 ‘聖明王’ 내지 ‘明王’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생존시에는 明穰王 내지 明王이라 하거나 聖王을 존칭하기 위해 그의 왕명 앞에 ‘聖’자가 관칭되어 일본측 사료와 같은 칭호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에서도 ‘성왕’과 관련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고,<sup>39)</sup> 진흥왕 5년에 완성된 大王興輪寺의 ‘輪’이 전륜성왕의 金輪이나 法王(부처)의 法輪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왕의 두 아들인 銅輪이나 舍輪의 이름이 전륜성왕과 관련된다는 점 등에서 신라의 경우도

36) 장지훈, 《한국고대미륵신앙연구》, 집문당, 1997, 43쪽에서 재인용.

37) 高翊晉, 앞의 책, 1989, 36쪽.

38) 장지훈, 같은 책, 1997, 70쪽.

39) 《三國遺事》 卷3, 興法 阿道基羅條. “(上略) 按我道本碑云 我道高麗人也 母高道寧 正始間曹魏人我崛摩 奉使勾麗 私之而還 因而有娠 師生五歲 其母令出家 年十六歸魏 省觀崛摩 投玄彰和尚講下就業 年十九又歸寧於母 母謂曰 此國于今 不知佛法 爾後三千餘月 雞林有聖王出 大興佛教 其京都內 有七處伽藍之墟 (下略)”

전륜성왕사상을 엿볼 수 있다.<sup>40)</sup> 그렇다면 백제나 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성왕도 미륵신앙의 전륜성왕에서 차용된 호칭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미륵신앙이 유입되고 성행한 시점은 5세기무렵 이후에 와서야 가능했던 점<sup>41)</sup>으로 볼 때 ‘聖王’이란 호칭은 후대에 붙여진 존칭일 가능성이 짙다. 굳이 미륵신앙의 전륜성왕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706년작인 <皇福寺金銅舍利函> 명문에 의하면 신라 중대의 神文王이 ‘聖人’과 동일시되고 있는 사례<sup>42)</sup>로 볼 때 고구려의 聖王이란 칭호도 고구려왕을 불교식으로 존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고구려의 ‘성왕’이 ‘동명성왕(제)’과 결부된 것은 고구려의 초기불교 관계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후세인들이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 설화 속의 聖王과 ‘동명성왕(제)’의 聖王을 동일시한 데서 비롯된 착오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聖王’ 칭호의 또다른 예가 <廣開土王陵碑><sup>43)</sup>에서나 <三國遺事> 卷2 紀異 駕洛國記條<sup>44)</sup>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호칭은 앞서의 경우와 같은 불교식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각각 고구려 개국의 시조인 동명왕처럼 고구려의 중흥을 이끈 광개토왕이나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 등의 성스러운왕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붙여진 순수 한자식 보통명사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40) 고익진, 앞의 책, 1989, 45~46쪽.

41) 金三龍, <백제불교와 미륵신앙>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195~196쪽.

42)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新羅>, 2002. “夫聖人垂投處濁世而育蒼生 至德無爲應閻浮而濟群有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 (下略)”

43) “好太聖王元出北夫餘 河洎之孫 日月之子”

44) “(上略) 爰有英規阿干 假威於將軍 奪廟享而淫祀 當端午而致告祠 堂梁無故折墜 因覆壓而死焉 於是將軍 自謂宿因多幸 辱爲聖王所御國城之奠 (下略)”

## IV.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三國遺事》 遼東城育王塔條의 ‘聖王’과 관련하여 4세기 요동지역의 정세 및 고구려와의 관계, 高句麗 ‘聖王’의 실체와 그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遼東은 일찍이 古朝鮮의 초기 중심지가 있었던 곳이며 고구려의 대륙진출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漢·魏와의 攻防은 물론이고 이후 이 지역으로 세력을 뻗던 慕容氏의 燕 등 북방세력들과도 그 소유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여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이들 국가간의 정치·군사적인 접촉으로 볼 때 일찍부터 고구려에서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聖王代 이전까지만해도 불교는 고구려의 민간에서 일부 극소수만이 믿고 있었던 종교였던 터라 당연히 고구려에서는 佛敎思想이나 佛塔 등과 같은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다. 비록 불교가 고구려에도 일찍부터 알려졌었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전진으로부터 고구려에 전래되었다하여도 여전히 불교 내지 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聖王代에 이르러서야 고구려에서는 왕의 신앙심으로 인해 불교문화가 광범위하게 성행할 수 있었고 佛塔이 바로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2-3세기에 발생하여 중국 전역에서 성행하던 重層樓閣塔의 실체가 성왕대 이전부터 이미 고구려내에서도 알려져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동지역의 고구려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佛法이 전해지면서(高麗聞道之始) 점차 佛塔 建立의 연유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검토해 볼 때 高句麗史에 있어서 불교식 ‘聖王’에 해당되는 인물로 고국양왕을 들 수 있다. 고국양왕은 재위 2년만에 요동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곳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요동지역을 점령하자마자 곧 그곳의 여러 성을 순행했을 것이며, 이때 그들 일행의 눈에 띈 것이 育王塔과 같은 불탑 및 佛敎經典 등의 불교문화였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고국양왕은 그 직후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생겼던 것이고 승하하기 전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고 복을 구하라는 유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고구려, 성왕, 요동, 불탑, 고국양왕

Abstract

## A consideration to the holy king of an article on the castle of Liao-tung's Yukwang pagoda from the Samgukyusa

Kim, Sun-Sook

This paper studied out the relation between a situation of Liao-tung(遼東) in the 4th and the Koguryeo(高句麗), as well as th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the Koguryeo's a holy king(聖王).

Liao-tung is the place where the early center of the Old Chosun(古朝鮮) has lain, and also this land was a very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e continent advance of the Koguryeo. Therefo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Koguryeo offenced and defenced against the Han(漢) and the Wei(魏) taking possession of this area from the early founding of a nation, and then the Koguryeo had to embark on the war of competition with the Yen(燕) extending a strength for this area surrendering with ownership. Thus in view of the Koguryeo and these nation's military conflict seem to be somewhat the recognition of Buddhism in the early Koguryeo.

But the Buddhism was believed only a small number in a religion even though before a holy king's reign. Because It had a lack of the understanding about its culture like the Buddhism's thought and a pagoda in the Koguryeo.

Though the Buddhism was known in the early Koguryeo, and also it was introduced from the Junjin into the Koguryeo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as usual the Koguryeo could do not practise wide knowledge about the Buddhism or its culture.

After all in a holy king's reign the Buddhism's culture could do actively because of a king's faith in the Koguryeo, and at this time many storied wooden pagoda could be built immediately in a holy king's reign. Yet this was able to be possible why the reason was already becoming well-known in the Koguryeo before the holy king's reign for the many storied palace pagoda to occur from the second till the third century all over the China. And also the Buddhism is really delivered to the Koguryeo dwellers of Liao-tung consequently it has been made gradually known the reason in the Koguryeo.

In view of such a historical and periodic background, it is able to point out the King Kogukyang as a character being applicable to the holy king in the history of the Koguryeo. Though it was a short time, the King Kogukyang could take possession of Liao-tung in the second year of king's reign, and in view of that place's geopolitical importance as soon as he occupied the area of Liao-tung, he made a round many castle, and also at this time these company observed the Buddhism's culture(both the pagoda and the Sutras). With this as a momentum a deep faith took place to the King Kogukyang the directly after, and he could leave behind to the people his last words, that is, "Do believe the law of Buddha and get a blessing".

Key Word : Koguryeo, A holy king, Liao-tung, Stupa, King Kogukyang